

청년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 -

△ 발표: 유형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하윤정 알바노동조합 조직팀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주 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발표 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성장과 활동

유형근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성장과 활동

유형근 (이화여대 연구교수)

1. 들어가며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결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직 결성의 문제의식, 조직 결성을 주도한 성원들의 정체성, 주요 활동 사항과 특징, 두 조직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음.

○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두 조직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본 작업의 일차적 목표는 두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실태에 대한 객관적 파악에 두어졌음. 이와 더불어 한국의 노동운동사 또는 사회운동사에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활동이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지점들을 추출해 볼 것임.

○ 이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청년유니온의 전현직 상근활동가 7명, 알바노조의 상근활동가 2명 등 총 9명과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또한 두 노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문서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보충하였음.

○ 본 연구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4년 기초과제 및 이화여대 SSK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밝힘. 이 발표문은 중간 단계의 초고로 향후 보다 완성된 형태로 공개할 계획임.

2. 어떤 상태인가?

<표 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조직 현황

구분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결성시점		2010년 3월	2013년 1월 (알바연대)
조직형태		일반노조	일반노조
설립신고		2012년 3월 (서울) 2013년 4월 (전국)	2013년 8월
조합원 자격		만15-39세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노동자	모든 노동자
조합비		월급의 1% 권고 단, 최저임금 시급이 최소금액 (만18세이하는 최소금액 3,000원)	최저임금 시급
조합원 수	결성시점	42명 ('10.3월)	10명 ('13년 8월)
	'14.7월	891명	312명
후원회원 수		약 200여 명	약 400명
조합비 납부율		약 60%	약 50%
상근자 수		9명	8명
선출직 임원		위원장, 사무처장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임원의 임기		2년 (중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현 집행부		3기 ('14. 2월부터)	1기 ('13. 11월부터)
집행체계		3국 4팀 -정책국, 조직국, 노동상담국 -사건대응팀, 노동인권교육팀, 청소년사업팀, 대학생팀	3팀 -기획팀, 조직팀, 홍보팀
대의원제도		20명당 1명 선출, 지역/부문 할당	없음
지부/분회		9개 지부: 광역시도 단위	1개 지부: 부산 9개 분회: 서울 6개, 부산 3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별 분회로 구성됨)
상급단체		없음	없음

3.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1) 청년유니온

○ 창립 이전의 준비 과정

- ‘개별 가입 유니온 형태의 청년 노동운동’을 구상하고 기획한 핵심 멤버 4명은 포스트-IMF 시기에 대학(90년대 말 - 00년대 초반 학번)을 다니며 학생운동(주로 NL 계열)의 경험을 하였음.

- 처음 ‘개별 가입 유니온 형태의 청년 노동운동’을 제안한 주체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었음. 이 주체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하다가 기존의 조직노동과 시민운동에서 청년실업 의제가 주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년 ‘당사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 이 과정에서 우연히 국회의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일본의 수도권청년유니온 사례를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함.

- 개별 가입 유니온 형태의 청년 노동운동에 대한 구상에 동조하는 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후 청년유니온 1기의 핵심 활동가들이 규합됨. 이들은 그 이전에는 서로 멀게 아는 사이였으나 당사자 중심의 청년 노동운동의 기획을 공유하였음.

- 당시 이들의 직업은 국회의원 보좌관, 학원강사, 휴대폰 조립 파견노동자, 빵집 알바 등이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음. 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의 전망을 고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유지와 학자금대출 상환 등의 압박 속에서 주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음. 따라서 이들은 불안정 청년노동자가 당사자가 되는 사회운동(노동운동)을 펼치려는 기획에 크게 공감하게 됨. 아래 2명의 연구참여자의 발언은 당시 청년유니온 초창기 멤버들의 문제의식의 일단을 잘 드러내줌.

“공장생활 한 2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 그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죠. ...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노조로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파이팅이 이렇게 크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었고, 진짜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디에서 하소연도 못하고, 보호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진짜 부족하거나, 예전에 엄마 말처럼 공부를 제대로 안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책임 아닌 실

제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하고 싶었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사실은 청년유니온을 그렇게 함께 해보자고 했었던 게 있었죠.” (연구참여자 1-C)

“저는 이제 되게 피폐하게 매일 출근하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학자금 대출만 갚고 있었던 상태여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았어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되게 우울해 하고 있었죠. ... 제가 학생운동도 했던 애지만, 그 학자금 대출 60만원씩 갚아야 된다는 압박,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왜 4년제를 욕심을 부려가지고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굳이 빚까지 얻어가면서 욕심을 부려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저를 자책하고 되게 그러면서 우울해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너의 욕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되게 위로가 됐었고 공감도 되면서 저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고, 그 때는 무슨 가능성이 크게 보였던 거는 아닌데, 뭔가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일단은 좀 위로하고 공감한 다음에 사회에 나만의 욕심이 아닌,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 아, 저는, 제 얘기를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연구참여자 2-A)

— 이들은 청년유니온 창립을 준비하면서 노동조합, 지역청년회, 진보정당 등 기존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과 접촉하면서 청년실업 이슈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실망하며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음.

“일단 청년운동하는 친구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운동이냐’에서부터 ‘왜 청년이 노동조합을 해야 되냐, 원래 전통적인 자기네 운동과 어긋난다’, 뭐 이런 전형적인 애길하고, 노동운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민주노총 들어와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걸 하냐’, ‘청년들이 뭐가 힘드냐, 노동자들이 힘들지’,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 저희가 구상했던 당사자들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이 되는 방식에 대해 반대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특히 노동운동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게 무슨 노동조합이냐’, ‘너희들 사용자가 누구냐’, ‘임단협을 어떻게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민주노총 산별에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개가 제일 컸죠.” (연구참여자 1-A)

○ 청년유니온(준) 결성: 2009년 8월

- 2009년 봄부터 여름까지 청년유니온(준) 결성을 위한 초동 주체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그동안 알고 지내던 학생운동 지인들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모였던 안티2MB 회원 등과 함께 약 15-20명 정도의 창립 준비 모임을 결성하였고, 2009년 8월에 청년유니온(준)을 출범시킴.
-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주로 지역일반노조운동을 했던 수 명의 활동가들이 재정적 후원을 하거나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었음. 이외에도 실업자운동단체, 비정규노동운동 단체의 활동가, 노동연구자, 노무사 등이 막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음. 기존의 주류 노동운동 진영이나 청년운동 단체 등에서의 적극적 지원이나 결합은 없었음.
- 청년유니온(준)은 2009년 하반기에 열린토론회, 대학등록금 문제 기자회견,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워크숍 참가, 공개강좌, 노동자대회 참여, 청년실업극복콘서트,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촉구 릴레이 1인시위 등을 진행하였고, 2010년 3월 13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함.
-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은 42명, 발기인은 224명이었음.

2) 알바노조

○ 2012년 대선과 알바연대의 창립

- 알바노조는 ‘알바연대’가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적 전환을 결정하며 만들어졌음. 따라서 알바노조의 결성은 알바연대 시기부터 살펴보아야 함.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김순자 선본(진보신당 구 사회당 계열)에서 알바노동자 권리찾기의 문제의식이 짙고 대선이 끝난 직후 12월 말에 본격적인 단체 설립 논의로 이어져 2013년 1월 2일 ‘알바연대’(공동대표 김순자, 허영구)가 출범함. 이후 ‘알바연대’는 2013년 5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 설립신고를 함. 처음에는 반려되었다가 8월 7일에 설립신고증이 나옴. 이후 알바연대는 알바노조를 후원하는 외곽지원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 12월 대선에서 김순자 선본은 후보자 본인이 청소용역노동자 출신으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었음. 대표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이었고, 선거활동의 일환으로 알바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임. 그 과정에서 알바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선본 성원들 간에 선거 이후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함.
- 대선 이후 7-8명의 초동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1월 2일 ‘알바연대’를 결성.

기존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은 대공장 사내하청으로 대표되었던 데 비해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불안정 노동자 집단의 하나로 알바노동자를 선택함. 따라서 알바연대는 기존의 진보정당운동 세력 중 일부가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활로 모색의 과정에서 결성한 사회운동 단체였고 그 활동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형태(알바노조)로 전환된 것임.

“우리가 사실 [대선 당시] 기본소득을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약간 좀 먼 얘기고,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실에 있는 건 최저임금제도이고,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은 싫든 뭔가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 최저임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알바노동자들이니 그들을 만나서 우리의 정책도 홍보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그래서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막 조를 나눠서 새벽시간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알바노동자들을 만나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연결이 됐고 알바노동자들을 만나고 보니, 이게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용돈 벌기 위한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심야시간에 돌아다녀보면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많고 아저씨들도 많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문제의식이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었죠. ... 선거가 끝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알바노동자, 이 두 개를 연결시킬 문제의식을 가지고 ... 진보정당들이 선거 끝나면 선거 때 제시한 허무맹랑한 공약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걸 일상의 운동으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이걸 제기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었죠.” (연구참여자 M)

— 알바연대가 알바노조로 전환된 핵심적 이유는 사회단체의 경우 알바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이었음.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이슈파이팅이나 노동부 진정이 최대한의 활동 내용인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3권이 있고 교섭의 법적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부성원들이 공유함. 그 결과 2013년 8월에 설립필증이 나오면서 알바노조가 결성되었고, 기존의 알바연대는 알바노조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자리 매김이 됨.

○ 초기의 운동 자원

— 알바노조는 기존 조직노동과는 독립적으로 진보정당운동 내부에서 발생하였음.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의 인적·재정적·상징적 자원의 보충보다는, 진보정당운동(구 사회당 계열)과 노동운동의 현장조직(좌파노동자회) 내부 운동 주체들의 헌신과 대선 국면에서 만들어진 선본에 대한 재정적 후원의 네트워크가 초기 조직 세팅에서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음. 알바연대의 결성을 가능케 한 재정적 후원은 지금까지도 알바노조 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4. 무엇을 하였나?

1) 청년유니온

가. 1기의 주요 활동: 2010. 3 - 2012. 2

○ 창립 초기의 사업: 최저임금 의제에 대한 착목

- 창립총회는 매스컴의 커다란 주목을 받음(‘백수노조’). 당시 청년세대 담론의 기회구조가 크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88만원 세대’,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문제 등).
- 창립 초기에는 재정 문제가 매우 어려웠음. 1인의 상근자(사무국장)를 두고 위원장, 정책기획국장 등은 비상근으로 활동하였음. 초기의 재정적 곤란은 청년유니온 창립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후의 이슈파이팅이 성공하면서 조합원 가입이 늘고 후원회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됨. 1인의 상근자 월급이 30만원에서 1년 후에는 90만원 정도로 늘어남.
- 창립 초기에 청년유니온의 정체성, 활동 방식, 사업 의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자기확신과 이해 부족한 상태였음. “처음에는 저희 고민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이게 청년 문제로 접근하는 거라면 세대론으로 가는 거고. 노동문제로 접근하는 거라면, 그런데 청년노동문제라는 게 아직 개념이 좀 명확하지도 않았고. ... 그 때 이제 저희도 혼재되어 있었어요.”(연구참여자 1-A)
- 1기 출범 이후 최저임금 사업이 최우선 순위로 배치됨.¹⁾ 최저임금연대 회의에 공식 참석. 청년유니온 자체적인 최저임금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점알바실태조사’(2010년 5-6월)였음. 실태조사는 조합원들이 조사 담당자가 되어 전국의 편의점 427개, 446명의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실태를 하나하나 수집한 것이었음.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청년유니온 고유의 활동 방식을 익혀감. 이 또한 언론 매체에 크게 부각되면서 조직도 확대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생겨남. 최저임금연대 내에서도 청

1) 청년유니온 창립총회 자료집의 「청년유니온 2010년 사업계획(초안)」을 보면, 2010년 사업기조는 ① 청년유니온 설립과 조직안정화, ② 청년노동문제 이슈화, ③ 청년노동실태조사 진행 등이었고, 주요사업 중 ‘최저임금인상 운동’과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청년유니온의 독자적 활동 역량에 대한 인정이 생겨났음. 이후 개별적인 노동상담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함.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받아 ‘최저임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이게 됨.

“우리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자는 주의였어요. 우리가 당사자 운동이니까. 당사자들이 자기 삶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 속에서 뭔가 풀어내야, 꼬집어 내보자는 게 저희가 원칙처럼 잡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우리랑 노동법 얘기도 하고, 최저임금 얘기도 하다가 어, 자기는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사장님도 말해주는 거 없고, 자기도 몰랐고, 자기 주변 사람도 물어보니까 다 모르고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 뭐지, 그러면 우리 한번 청년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친구들이 최저임금 얼마인지 물어다봐 볼까, 해서 그 친구 한 명의 제보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화를 시킨 거예요. 딱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는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 청년유니온이 해야되는 활동의 감 같은 것을 잡았다고 해야 되나, 현장에서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분노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연구참여자 1-B)

— 매년 최저임금연대 테이블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인상운동이 다소 관성화되어 있고, 총연맹에서도 고령층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처럼 인식되고 있을 때, 최저임금 투쟁의 일 주체로 청년유니온이 참여하여 그 투쟁의 외연을 넓히게 됨.

○ 캠페인의 전형 만들기: 피자30분 배달제 폐지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캠페인

— 피자30분 배달제 폐지 캠페인(2011년 2월). 원래 창립 시기부터 내부적으로 배달업 종사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을 벌여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의 30분 배달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는 인식이 존재했었음. 그러나 이후 2010년에 여러 다른 사업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 12월 성탄절을 며칠 앞둔 날 도미노 피자 배달원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전격적으로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을 약 3개월 정도 전개함.

— 이 캠페인은 청년유니온, 민간서비스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이 결합한 공동 기자회견(2.8)과 더불어, 청년유니온은 조합원들에게 트위터 멘션창 맨 앞에 ‘#노(NO)30 서비스’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도록 하는 등 트위터 시위를 하였음. 오프라인 시위도 병행하여 도미노피자 본사 앞(2.17), 명동(2.18), 대학로(2.19) 등지에서 트위터 시위를 스크린으로 생중계하여 업체를 압박함. 트위터 시위 2주만에 도미노피자를

비롯해 여러 피자 업체에서는 ‘30분 배달제’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2013년 2월).

－ 이 캠페인은 활동가들이 청년유니온 고유의 활동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음. 내부적으로 청년유니온의 활동 포커스가 청년‘세대’ 일반의 고통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 불안정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이슈로 집중되도록 한 주요한 계기였음. 또한 이러한 일련의 캠페인 활동의 성공과 사회적 여론화로 기존 노동운동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됨.

“아,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유니온이 이슈파이팅을 할 수 있구나, 인정받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슈파이팅 제대로 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자신감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어요. ... 30분 배달제 폐지 캠페인은 우리가 기획해서 시작해서 싸움을 걸고 폐지를 시킨 것이니까, 이게 승리의 성과 경험으로 많이 오니까, 이게 조합원들을 확 모이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죠. 이거 하면서 더 노동문제 쪽으로 천착을 하기 시작했구요. 사실은 예전에 청년문제 쪽에 많이 혼재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30분 배달제 폐지 이전까지는 실업자노조, 청년실업자노조, 백수노조, 이런 게 언론들의 주요한, 많이 우리를 쓰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지 않다, 우리는 노동하는 청년들의 노조라고 강변했지만, 그렇게 안 다루어졌었죠. 그런데 점점 이제 30분 배달제 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바뀌게 된 계기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노동문제를 고민해봐야겠다. 어떤 사각지대, 기존 노동의 사각지대, 기존 노동이 다루지 않았던, 조직노동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연구참여자 1-B)

－ 2011년 여름에는 커피전문점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캠페인을 벌임. 이 의제는 커피전문점 알바를 하던 조합원 개인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실태조사, 범위반 사례 공개, 사회적 여론화 및 소송, 업체와의 교섭(협의), 문제해결의 수순을 거쳤음. 운동의 성과로 고용노동부는 주요 전국의 주요 커피전문점 125개 매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게 됨.

－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의 시작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한 명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됨. 그 조합원은 청년유니온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하면서 ‘주휴수당’ 규정을 인지하게 되어 당시 자신이 일하던 커피전문점 매장 사장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매장 사장은 이를 본사에 문의하게 되었음. 본사 차원에서 점검한 결과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 본인에게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음. 이를 계기로 청년유니온은 2011년 최저임금 사업의 핵심 포인트로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이 캠페인을 위해 청년유니온은 10-12명 정도의 열성 조합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 사업의 기획, 설계, 실태조사, 기자회견, 교섭 등의 전 과정을 함께 책임짐. 이후 이 TF팀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청년유니온 활동의 중심에서 함께 하는 활동가로 커나감.

- 그 전 해의 ‘편의점알바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커피전문점 본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벌임. 기자회견 당일에 해당 커피전문점(카페베네) 본사로부터 연락이 와 청년유니온과 교섭이 진행됨. 교섭 결과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103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여 만원이 지급되었음. 다른 한편 커피빈에 대한 당사자 소송도 진행한 결과 총 3,000여명의 청년노동자에게 5억원의 미지급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음.

- 주휴수당 지급 문제는 기존 조직노동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슈로 포착하지 못한 사안이었음.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노조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한 것이었고 주요한 쟁점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비율 문제였음. 대부분의 유노조 사업장이나 총연맹의 노무사들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고용형태에서 발생하는 주휴수당 문제, 즉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단순시급의 합계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법조문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현장의 지식(lay knowledge)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의제화한 것임.

-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 이후 청년유니온은 노동상담 업무가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실제 노동상담 건수가 급증하였음. 개별 청년노동자(조합원)의 권리구제 활동을 전담하는 ‘노동상담팀’도 안착되었음. 2011년 1년간 온라인상담 174건, 전화상담 243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휴수당 캠페인이 언론에 보도된 9월 이후부터 전화상담이 활성화되었음. 전화상담 건수 중 ‘임금’ 관련이 203건(83.5%)에 달하였음.²⁾

“주휴수당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날 오전에 한겨레가 보도했고, 그날 밤 9시 MBC뉴스데스크에도 나갔는데, 그날 밤 아홉시부터 노동상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밤 아홉시부터. 그냥 온 게 아니고, 거의 그 하루에 한 삼십 통씩 상담을 했으니까. 우리가 노무사도 없고,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스스로 우리끼리 공부한 노동법을 가지고, 당시 어렸던 친구가 노동상담팀장이었는데, 직접 우리가 상담한 거예요. 물론 노무사들 자문도 받았죠.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고, 크게 커피빈이나 카페베네 받아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상담해서 업주들이랑 만나서 받아낸 액수도 커요. 그 때 뭐 몇 백만원은 우습고, 다 받아서 다 돌려주고 무료로 다 해줬죠. 그러니까 노동상담이 안착이 된 거죠. ... 이 싸움을 준비했던 조합원들이 많이 울고, 그 싸움이 꽤 컸죠. 노동조합으로서 약간 본격화된 것

2) 청년유니온 2012 정기총회 자료집, 43쪽 참조.

이랄까, 정체성을 좀 확립하게 됐죠.” (연구참여자 1-A)

- 잇따른 캠페인 성공 등으로 조합원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는 재정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짐. 상근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 지급 가능해짐. 2010년 3월 창립 총회 당시 조합원 수는 42명에서 출발하여, 1년 후인 2011년 3월에는 210명, 2012년 3월에는 497명이 됨(해당연도 정기총회 자료집).

○ 리더십 교체

- 2년간의 1기 지도부 임기가 다하면서 청년유니온은 1기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2기 지도부를 새롭게 꾸림. 지도부 교체를 위하여 1기 2년차에 차기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일명 ‘바보회’)을 내부적으로 운영함.

- 1기 지도부의 퇴진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음. 한편으로 1기 지도부보다 더 젊은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운동가로 성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2012년 선거 국면(대선과 총선)에서 1기 핵심 멤버들의 정치적 진출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임. 전자의 문제는 청년유니온 세대 이전의 ‘선배 운동가’들의 모습이 반면 교사로 작용한 것과 더불어, 20대 당사자가 자기 세대의 문제를 제일 잘 알 것이라는 고려도 작용하였던 것임.

“초창기 멤버들이 저하고 같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 하나가 고착화되는 거 같은 거였어요. 선배 세대들이 다 대표직을 하고 있고, 40-50대도, 10년, 20년째 대표고, 20대부터 실무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30-40대까지 계속 그러고 있고. 나이 30대 중반 되어서 결혼도 하고 이런데, 계속 실무자로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되게 컸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 세대 커리어를 키워주고, 예를 들면 자기 커리어가 되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젊은 활동가들이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선배 세대 운동가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이 있었어요. ... 처음부터 고민했어요. 2년 끝나면 무조건 셋 다 나간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연구참여자 1-A)

“1기 때는 저희가 어쨌거나 이 조직은 20대를 위한 조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 1기를 하면서도 후배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2기부터 맡게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는 말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1기가 끝나면 무조건 다 나가야 된다. 30대니까 벌써 30대 중반이니까 우린 나가자, 여길.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이만 돼도 지금의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이미 갭이 너무 크거든요. ... 우리는 문화적으로 굳이 보면 당사자의 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물론 그 때 정치적 일정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나오자고 했던 것은 그런 이유였죠.” (연구참여자 1-B)

- 정치적 진출 문제는 내부 분란을 야기하였음. 1기 정책기획국장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후보로 등록하였고, 특히 1기 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비례 후보로 진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청년유니온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짐. 결국에는 내부적인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사자가 민주당의 후보 진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되었음. 정치적 진출 문제를 둘러싼 내부 논쟁을 거치면서 청년유니온 핵심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청년유니온 활동에 직접 투영하지 않는 하나의 암묵적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음.

- 1기 2년차의 ‘바보회’는 1기 지도부가 발굴한 열성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프로그램이었고, 이 모임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핵심 활동가들이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청년유니온의 조직적 진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능을 하였음.

- 1기 지도부가 30대 초중반으로 구성되었다면, 2기 지도부의 연령은 이제 20대 중후반으로 젊어졌음. ‘바보회’ 운영의 전통은 이후 2기에서 3기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었음(‘新바보회’).

나. 2기의 주요활동: 2012. 3 - 2014. 2

○ 새로운 리더십 구성

- 2기 1년차는 새로운 선출직 임원 및 상근자로 출발하여 초반에는 실무 역량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었음. 또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어 선거 국면에서의 정책적 개입에 청년유니온의 많은 실무 역량이 투입되면서 자체 활동은 다소 부진하였음.

- 2기 지도부는 출범하면서 법내 노동조합, 네트워크 노동조합, 청년일반 노동조합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음. ‘법내 노동조합’은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통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위상을 획득하고, 법내 교섭과 협상을 통해 청년노동을 대변하는 조직모형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임. ‘네트워크 노동조합’은 지역별 유니온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유니온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업종모임을 건설하여 업종별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발언력을 높여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임. ‘청년일반 노동조합’은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청년층의 첫 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제들을 이슈화하는 목표였음.

○ 서울시와의 정책 협약

- 2012년 3월에 서울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음. 이후 6개 지역에서 노조 설립필증을 받고, 법내 노조로 인정됨. 당시 전국단위의 청년유니온은 법외노조였음.

-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4월부터 청년유니온은 서울시를 상대로 사회적 교섭을 요청함. 청년유니온은 약 20여 개의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약 반 년 동안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서울시와 청년유니온 간의 ‘사회적 교섭’이 마무리됨.

-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서울청년유니온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2013. 1. 18)임. 여기에는 먼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①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② 양자는 공동으로 청년 일자리 권리선언을 발표하며, ③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며, ④ 서울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하며, 다음으로 ‘청년 취업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의 단계적 추진 방안 수립, ⑥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표준이력서 사용방안을 추진, ⑦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지원 추진, ⑧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⑨ 청년창업센터 개선방안 마련, ⑩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청년고용지표를 마련하여 공공구매 등에 활용 노력, ⑪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⑫ 표준근로조건의 홍보 노력, ⑬ 서울시립대 노동법 교양과목의 신설 운영 방안 추진, ⑭ 생활임금 연구 실시, ⑮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방안 마련 등의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와의 정책 협약은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이후 노동조합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교섭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놓고 청년유니온 내부에서 고민한 산물이었음. 보건의료노조로부터 조언 획득, 외국의 ‘사회적 교섭’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관행 등을 연구하여 서울시에 제안을 하게 되었음. 서울시의 경우에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았고 노동특보의 채널이 존재하여 기존 공무원 집단의 거부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구조가 있었음.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정책 협약서가 체결됨.

- 서울시와의 정책 협약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청년유니온이 청년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당시의 청년유니온 핵심 활동가는 이를 “상징적 의미의 대표”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자평하였음(연구참여자 2-A). 또한 그 이후 서울시에서 청년노동 문제에 관련한 협의체 기구에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의 대

표조직으로 인정받고 관여하게 되었음.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보호협의체 참여,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설치 및 운영에의 관여 등이 있음.

－ 이후 「정책 협약」을 근거로 현재까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취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립대 노동법 교양과목 신설, 생활임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졌음.

○ 직접 조직화 노력: 미용실 스텝 조직화 시도

－ 청년유니온 2기 지도부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특정 직종/업종(미용실 스텝, IT 노동자, 학원강사 등) 조직화를 주요 사업으로 배치하였음. 그 일환으로 2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미용실 스텝 조직화 사업을 벌였음. 이 사업은 청년유니온이 기존의 이슈파이팅 위주의 활동을 넘어서 직접 특정 업종이나 직종의 청년노동자를 조직화(organizing)하려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것임.

－ 당시 조직팀장이었던 활동가가 미용실 스텝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자료조사와 업계의 관행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 작업과 노동상담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이슈화시켜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소속된 스텝들의 고용조건이 일정 부분 개선됨. 미용실 스텝은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이라는 업계의 관행에 의해 평균 시급이 3,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대대적인 여론전을 진행하는 한편, 이철 헤어커커에서 근무하였던 조합원의 임금체불 문제로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현장의 근로조건이 조금 개선되었음.

－ 그러나 조직화라는 애초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미용실 스텝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직종 모임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2차례 모임에 10명 정도의 미용사 및 스텝이 참가했고 이후에는 모임이 유지되지 못하였음. 조직화 실패는 미용실 스텝 직종의 특수성(도제 관계)에서 오는 조직화의 난점과 더불어 이슈파이팅을 넘어서선 실제 조직화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의 마련이나 주체의 헌신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청년유니온의 역량이 미약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음.

“이게 당사자가 중요하긴 한데, 당사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더 많더라는 것을 미용실 조직화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제3자가 얘기하는 건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디자이너가 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수가 여기만 좀 참아내서 디자이너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앞에 나서거나, 입밖으로

꺼내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용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 미용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A)

- 미용실 스텝 조직화 시도를 계기로 청년유니온 내부에서는 활동 방식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졌음. 즉 1기의 캠페인과 같은 이슈파이팅 위주의 활동방식과 더불어 ‘법내’ 청년 세대 일반노조로서 가지게 된 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여 얻어지는 조직 확대의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의 문제가 핵심 활동가들의 고민이 되었음.

○ 취업준비생 이슈의 제기

- 2기 지도부가 출범시 표방한 3대 목표 중 하나인 ‘청년일반 노동조합’으로서 청년 유니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업준비생(청년 구직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에 존재했음.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조설립신고 투쟁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3년에 토익 시험 응시료 문제의 제기로 표면화되었음.

- 일명 ‘구직자의 역습’이라고 칭해진 이 이슈파이팅은 2012년 구직자들의 이력서 작성을 위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사업을 벌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3년에 YBM의 토익(TOEIC) 시험 독과점 지위 남용에 의한 응시료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음.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취업준비생 이슈의 제기는 취업시장에 일찍부터 내몰리는 대학생들로부터 즉각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재 그 캠페인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청년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구체적인 피드백이 오는 효과를 거두었음.

“저는 20대가 투표도 안하고 정치문제에 관심없다고 불리는 이 20대 초중반 세대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DNA가 다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아닌데, [토익 문제를 제기하면: 인용자] 피드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누군가 대변해주거나 대표해 준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 이건 진짜 이상한데’라는 것을 누군가가 스피커를 대고 마이크 대고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드백이 왔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깊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A)

다. 3기의 주요 고민: 2014. 2 -

○ 변화된 조직 상황

- 노동조합의 합법화(법내 노조), 조합원 900명, 전국화,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
- 3기 1년차의 슬로건: “청년이 만드는 새로운 노동운동”

○ 기존의 사업방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전망을 구체화하는 일

- 1기부터 개발된 청년유니온의 고유한 사업방식(캠페인)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한 이슈 발굴, 실태조사와 언론 플레이, 법률적 소송, 사회적 여론화(국회/노동부), 해당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력 행사, 제도 개선의 일련의 수순을 밟는 것이었음.
- 이와 더불어 3기에 와서는 법내 노조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요구가 내외부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즉 이슈파이팅 캠페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조직화와 교섭에의 요구가 내외부적으로 커지는 상황임.
-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의 관행상 민간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조직화를 하지 않은) 일반노조가 교섭을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직화/교섭 과제는 지금까지의 청년유니온 활동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회적인 교섭을 통한 당사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특정 직종/업종에서의 일반노조에 의한 ‘교섭의 제도화’는 전인미답의 영역임.

○ 조합원 규모의 증가와 조직 관리의 필요성

- 설립 초기에는 리더십과 조합원 사이에 대면적(face-to-face) 관계가 가능했음. 그러나 현재 약 900명에 이르는 조합원 규모의 성장과 여러 지역지부들의 활동 등과 같은 ‘조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

2) 알바노조

가. 초기 활동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유동성이 높고 고립성이 큰 알바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였기에 잠재적 조합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었음. 알바

연대 결성 초기에 선전전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면서 잠재적 조합원들에게 접근하였으나,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연 알바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대중적 인지도가 생기게 됨.

－ 이후 열악한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동 전술로 ‘퍼포먼스가 가미된 기자회견’을 채택하였고, 2013년 1년 동안 약 4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수행함.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끌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며 그것이 개별 상담의 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 증가와 재정 수입의 증대로 연결되었음.

－ ‘최저임금 1만원’을 대표적인 슬로건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과격적 슬로건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 2013년에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위한 노동계 협의체인 ‘최저임금연대’에 초청을 받지 못함. 대신에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 위원회’를 꾸리고 작년 최저임금 투쟁에 나섬(이 위원회는 청년좌파, 좌파노동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연구공간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이 함께 함).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가 생기고 알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2014년에 와서는 정식으로 ‘최저임금연대’ 테이블에 들어가게 됨.

－ 조직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13년 5월 1일의 ‘알바데이’ 집회 및 거리행진이었음. 노동절을 맞아 알바연대는 자체적인 독자집회 및 행진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노동조합의 집회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획을 하였음. 약 150명가량의 독자적인 동원력을 확인하게 되고 자체적인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초기 과정에서 내부 핵심 주체들은 활동의 자신감을 갖게 됨. 2014년 노동절에도 ‘알바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음.

－ 알바연대의 알바노조로의 조직적 전환은 2013년 5월경에 있었음. 알바연대라는 조직 형태는 일종의 사회운동단체인데, 알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현실적으로 노동부 진정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문제의식이 공유됨.

“현장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바도 노동자라는 것을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노동자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월쯤부터 알바하는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를 얘기를 해서, 노조를 한 번 신청을 해보자, 신청을 해보고 되면 노조 활동을 확 펼쳐야 되는데, 청년유니온의 사례가 있으니,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걸리면 이제 알바연대 활동을 하고. 어쨌든 신청을 해보자 해서 노동부에 5월에 신청서를 내고 처음에는 반력을 당했죠. ... 그러다가 8월이 돼서 그냥 신고증 못 받아도 먼저 기자회견을 하자, 이걸 쟁취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자 해서 8월 6일에 알바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했어요. ... 기자들이 엄청 만히 왔고, 여기저기 실리고, 그 다음날 바로 설립신고증이 나왔어요. 아,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연구참여자 N)

- 마지막으로 운동 전망의 문제가 주체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형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임단협이라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전형(stereotype)이 주는 규범적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함. 교섭을 수행할 기반이 되는 조합원도 없고, 새로운 교섭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조 활동의 전범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망의 문제. 이 어려움은 2013년 9월경 의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레드아이’) 업체에 고용된 한 알바노동자의 부당해고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교섭을 통해 조금씩 해결해 나가게 됨.

나. 새로운 캠페인 전술: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 2013년 2월 ‘알바5적’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 알바노동자의 사회적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리는 계기.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언론의 주목을 끄(신문에 포토기사로 많이 실리게 됨).

“캠페인을 저희가 동물옷을 입고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월이거든요. 이러면서 알바연대가 하는 것들이, 뭔가 좀 다른 운동, 민주노총의 그런 노동운동, 기존의 노동운동이랑 달리 좀 발랄하고 재치있고, 좀 약간 젊은 티 나는. 사실 동물옷을 택한 거는 딱히 별 이유가 없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그런 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정말 40번 넘는 기자회견 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 퍼포먼스가 있었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되면 안 오니까. ... 그러면서 알바데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런 류의 발랄한 퍼포먼스의 정점을 찍고, 그렇게 상반기를 다 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 투쟁 같은 거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벌금 걱정 안하고 열심히 투쟁하고, 막 빠라같은 거 문화재에 올라가서 뿌리고 경총 처마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되게 계속 치고 나갔던 거 같아요. 상반기 내내. 그런 것들이 되게 자신감도 많이 줬고, 이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기존의 노동운동하던 진영에게 좀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N)

- 퍼포먼스나 기자회견, 집회의 아이디어는 상근 활동가들의 기획력과 회의, 인터넷을 통한 벤치마킹(구글 이미지 검색) 등으로부터 얻어짐.

다. 주요 활동: 캠페인과 개별 교섭

○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 알바연대 결성 초기부터 핵심 의제로 제기함. 결성 직후의 캠페인의 형식은 서명, 유인물 배포, 연설, 실태조사 등. 이후 대중적 캠페인을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함. 출발은 2013년 연초의 인수위원회였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적. 언론의 주목을 받음.

- 이후 ‘알바5적’(고용노동부, 카페베네, GS25,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기획을 하여 릴레이 기자회견을 함. ‘알바5적’ 캠페인에서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업종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된 타깃. 당시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에 대한 논란과 분노가 커지던 시기였고, 알바노동자들의 문제가 이와 연동되어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함. 알바5적 캠페인은 언론의 주목을 더 끌게 되었고, 당시 한국일보 1면에까지 기획기사로 실림.

- ‘최저임금 1만원’ 슬로건은 단순히 알바노동자들의 시급을 올리자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대폭 상승시키고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저임금근로자들에게도 단위시간 당 임금을 대폭 올림으로써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확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에 대한 청사진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음.

- 2014년에 들어 알바노조는 ‘최저임금연대’에 정식 참가조직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투쟁에 공식적으로 결합하였음. 아직 다른 단위들로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올해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작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6700원’ + 알파).

- 최저임금연대 이외에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대폭인상 생활임금쟁취 서울지역연석회의’에 참가하고 있음. 이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도하고 청년유니온, 진보정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공공운수 서경지부 등이 참가하는데, 주요 활동 조직은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임. 올 6월 13일 청년유니온과 알바연대가 광화문에서 공동 문화제를 개최하였음.

○ 개별적 교섭의 경험

- 2013년 8월 법내노조로 인증을 받은 이후 알바노조의 고민은 노동조합다운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교섭 사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함으로써 일반노조

로서의 활동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인지하게 됨.

- 당시 알바노조가 주최하는 노동법교육에 참여한 한 대학생이 주휴수당, 휴게수당을 알게 되어 자신이 일하던 ‘레드아이’ 매장 관리자에게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 해고를 당한 이 알바노동자가 노조에 상담을 요청하여 자문 노무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였음. 회사에 대한 압박으로 본사 사장이 직접 알바노조로 전화를 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고, 알바노조는 본사에 정식으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냄. 부당해고 사과 후 복직, 근로기준법 준수, 매장 종업원들 의자 설치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협약을 맺음.³⁾ 이러한 일련의 교섭 사례는 한겨레신문 2면에 보도되었음.

- 레드아이와 맺은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XXX점에서 근무하는 이00 조합원에 대한 해고통지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이를 철회한다. ② 향후 레드아이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해 법정수당, 휴게시간 등 노동법을 준수한다. ③ 레드아이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휴게를 위해 전 매장에 의자를 설치한다.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고 및 징계절차를 확고히 마련하고 연 1회 성평등 교육을 전 직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⑤ 레드아이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건, 해고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조합에서 추천한 1인 이상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다. ⑥ 위 사항을 기본협약으로 정하고 차후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안을 체결한다.

- 2번째 개별 교섭은 가톨릭대 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교 근처 고깃집이었음 (2013년 11월). 알바노조 가톨릭대분회에서 학내에 붙인 주휴수당 홍보 대자보를 보고 한 학생(비조합원)이 분회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을 하여 분회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압력을 가함. 우선 알바노조는 부천 노동청 앞에서 인근 상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고깃집 사장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가톨릭대와 성공회대 조합원들이 가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임. 이후 사용자는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에 동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함.

- 이 협약서에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야근수당 지급 의무, 주휴수당 지급 의무, 4대보험 가입 의무,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사과하고, 상기 노동법상의 권리를 준수 노력을 다하며, 체불임금을 지급하며, 모든 알바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발행하고, 근무 중 재해를 방지토록 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병원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등이 담

3)

겨있음.

- 이 2번의 교섭 사례는 노동부 진정과는 다르게 노조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사용자와 직접 만나서, 서면으로 요구안을 제시하고, 같이 합의하고, 이렇게 해야 알바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내 문제를 노조가 저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나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전체 알바들의 문제가 좋아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M)

라. 현재적 평가와 계획

○ 조직 진단과 평가

- 알바노조 자체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음. 즉 현재까지의 성과는 언론의 주목에 기댄 바가 크고, 조합원 조직화도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가입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봄. 특히 후자는 가입은 되어 있으나 동원이나 조직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개별적 가입을 통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실제 주체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느낌.

- 2013년 8월 알바노조 ‘출발’ 기자회견 당시 조합원은 10명이었고, 11월 알바노조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은 100여명 정도였음. 이후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7월 현재 321명임. 알바노조의 자체 진단으로는 이 중 약 200명 정도가 알바노조의 활동을 접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임. 문제는 이들이 누구이고, 알바노조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내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임. 이를 위해 현재 알바노조는 조직팀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적인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음. 가칭 ‘알바상담소’를 개설하고 개별 상담 및 가입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함.

○ 활동 계획

- 알바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교섭 형태에 대한 고민. 지역단위의 교섭을 중장기적 목표로 세우려고 함. 개별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 위주의 교섭이 갖는 한계는 명확함. 특정한 지역상권(商圈)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역협약을 고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의 지역위원회, 지방의원, 기초/광역자치단체, 노동부지청 등

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협약의 형태. 올해 하반기부터 ‘조직팀’을 통해 홍대 지역을 핵심 조직화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캠페인을 집중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 알바노조는 진보정당운동의 한 세력이 독자적인 불안정 노동자 운동을 상시적으로 벌이려는 자기 계획 하에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 자임하고 있고, 장기적인 조직적 전망도 불안정 노동자들의 지역노조와 지역의 진보정당의 결합을 고민하고 있음. 알바노조의 임원은 사건임을 전제로 이러한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음.

“제가 생각하는 노조의 향후의 그림이 지역노조의 형태를 지향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건 조합원들을 지역으로 편재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의 그림은 지역노조고, 이것이 기반이 되는 지역정당, 이 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도 많지 않고, 조직적 힘이 모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고, 단지 사건은 되게 많고, 뭔가 지원해줘야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역량이 잘 모아지지 않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정규직 노동자들, 교사들, 학생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운동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당운동으로 조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운동의 결합을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M)

5. 함께 생각해 볼 지점들

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운동 영역의 개척자

○ 청년 불안정 노동자 또는 청년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한국적 버전

－ 서구와 일본의 청년노동자 조직화 사례와의 차이

－ 서유럽과 미국의 경우 주로 기존 노조운동의 조직화로의 선회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와 더불어 청년노동자가 핵심적인 신규 조직화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그 방식도 총연맹(또는 산별노조)의 독립적인 청년조직 결성으로 나아갔음.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후 유니온운동을 통해 개별 가입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위주의 활동을 벌였음.

○ 한국의 기존 지역일반노조운동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와 같은 청년 불안정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운동은 왜 단기간에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포스트-IMF 시기의 새로운 사회운동/노동운동

- 청년유니온 결성 주체들은 명확히 이전 세대의 사회운동과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 한편으로 80년대 이후 전개된 학생운동의 몰락 이후의 ‘학생운동 세대’의 자기 고민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와 불만을 공유하고 있음.

- 알바노조는 좌파진보정당운동의 현재적 위기 속에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중심의 상시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일군의 주체들의 자기 인식이 바탕이 되었음.

○ ‘변방의 북소리’ : 근로기준법조차 준수되지 않는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노동자 이해대변의 거의 완전한 공백지대에서 ‘북소리’를 올림. 그것도 기존의 조직노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채 독립노조의 지위를 통해. 조직화의 경로를 보면, 전통적인 사업장 중심의 조직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슈의 발목을 통한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행사를 통한 일종의 ‘공중전’을 벌이고 이 성과에 기반하여 잠재적 조합원들이 노조로 찾아오도록 하여 조합원을 확충하는 경로를 채택함. 이렇게 하여 확충된 인적·재정적 자원은 다시 더 크고 세밀한 이슈파이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됨.

나. 초기 결성 주체들의 내부적 의미틀(frame) 정립과 정체성 형성

○ ‘당사자성’의 문제: 특히 청년유니온의 경우 현재까지의 주요 활동가들은 단순히 학생운동이나 진보정당운동의 연장선에서 청년유니온 운동을 사고하지 않음. 그들의 대다수는 본인들이 졸업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한 경험을 갖고 있음(학원강사, 단기 알바, 중소기업업체 파견근로자, 방송사 파견직 등). 또한 그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노동자들의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위축, 상대적 박탈감 등을 실존적 고민으로 안고 있었고, 청년유니온 운동과 조직 활동은 그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내상을 치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인식하고 있음. 즉 그들에게 청년유니온은 노조 조직 이전에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는 커뮤니티였고, 바로 이 점이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의 헌신성과 특유한 정서구조를 이루었음.⁴⁾ 이러한 정서구조는 87년 이후의 노조운동보다는 70년대 여공들이 주도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됨.

4) 청년유니온의 영문명은 ‘Youth Community Union’임.

○ 따라서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을 접했을 때 양자 간의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님. 그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로 환원되지 않음.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가들이나 임원들의 인식 속에는 불안정 청년노동자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을 초창기 양자 간의 대화와 접촉 속에서 재차 확인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민주노총과의 관계 설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흥미로운 것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지역일반노조운동에 복무하였던 선배 활동가들의 경우 청년유니온 결성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을 해주었고, 청년유니온 활동가들도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연대의식이 상대적으로 좋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임.

○ 알바노조(알바연대)의 경우, 진보정당운동 내부에서 불안정 노동자(프레카리아트)운동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한 주체들의 운동적 헌신에 의해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보다는 명확한 운동 정체성의 표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기존의 주류 조직노동 진영과는 우호적 연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독자적인 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정치적 기회구조

○ 청년유니온의 급속한 성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유행처럼 번진 일련의 ‘청년세대 담론’(88만원 세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콘서트, 반값등록금 의제)을 한편으로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을 또 한편으로 하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 전자는 결성 초기 엄청난 매스컴의 집중 조명과 이슈파이팅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후자는 청년유니온의 ‘시민권’ 획득과 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

○ 알바노조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노동 양극화로 인하여 발생한, 가장 지위가 낮은 알바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호소가 매스컴에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 주었다는 점에서 초기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음.

라. Quasi-Union? : 노동조합과 NGO 사이

○ 양 조직 모두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노동조합 형태로는 포괄되지 않는 특징들이 뚜렷하게 존재함. 조심스럽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 둘은 quasi-union(준-노조, 유사-노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됨.

○ 이 둘은 노동조합이지만 이슈파이팅 위주의 활동 방식은 NGO에 더 가깝고,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기 보다는 NGO를 후원하는 의미와 유사하게 조합에 가입하여 매달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며,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 법률의 지형상 정례적인 임단협을 통한 노조 활동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는 (물론 일반노조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quasi-union으로 파악해야 더 적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됨.

○ 실제로 두 조직의 핵심 활동가들은 현재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NGO(또는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음. 그것이 ‘이슈파이팅/여론전 대조직화/교섭’이라는 고민으로 현상화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양 조직을 quasi-union으로 사고한다면, 이러한 이항대립은 그리 큰 쓸모가 있어보이지 않음. 오히려 카멜레온처럼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과 조직적 개방성을 확보하는 게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노동시장에서 유용한 조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함. 결국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해대변(interest representation)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형식은 두 번째 문제이지 않을까.

발표 2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의식과 상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의식과 상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청년유니온),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알바노조) 우리사회에서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법의 사각지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각인 시킨 노동 이슈임. 이 사안은 기존 양대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직에서 쟁점화한 것이 아닌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라는 세대별 노동조합의 대표적 활동 사례임.

— 지난 2010년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이라는 세대를 대변하면서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출범(2010.3, 노조 필증 2013.4.30)했고, 2012년 대선 이후 알바연대를 모태로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이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아르바이트)을 대변하면서 또 다른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출범(알바연대 2013.1.2., 알바노조 필증 2013.8.7.)했음.

— 그간 우리나라 노동운동진영에서 청년 노동문제가 불안정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 문제에 포착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두 노동단체 출범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임. 사실 민주노총에서도 청년 조직화 문제가 내부에서 논의(미조직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2기 선정 시기)된 적은 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3기에 청년 조직화가 포함됨.

— 그렇다면 왜 서구 나라들과 달리 양대노총이라는 노동조직이 아닌, 노동운동 외각에서 초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세대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 2010년 이후 자생적

* 본 발제문은 김종진 연구위원, 유형근 객원 연구위원이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원자료(2014.7)를 필자가 분석한 것임.

** 필자는 서비스산업 및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다가, 청년유니온(現 정책자문위원, 후원회원)과 알바노조(現 알바연대)의 정책자문, 간담회, 조합원 교육, 송년회 밤 및 대의원대회 참석 등을 하면서 해당 노동조합 활동과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

으로 출범했을까. 또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어떤 상태(인구사회학적 속성 : 연령, 학력, 연령, 혼인상태, 노동시장 속성 : 고용형태, 노동 일, 노동시간, 직업)이며, 조합원들의 의식(사회, 정치, 경제, 개인)과 계급의식(노사관계, 노조 활동 지향) 등은 어떨까. 두 노동조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 만약 그 현상이 확인된다면 이질성은 어느 정도 일까.

- 우리사회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년들의 '보수화'의견들이 언론과 현장에서 제기된바 있음. 이는 기존 노동조합의 젊은 조합원(인구학적, 근속기간)들의 노조 가입, 활동, 간부 의향의 인식과 태도에서도 간접적으로 보수화 경향이 알려진 바 있음. 물론 보편적 청년층 조합원들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 내면적 행동, 태도 등 이해하는 작업(understanding)들은 찾아보기 어려움.

- 실제로 우리나라 기존 조합원 중의 젊은 청년 조합원이 아닌, 불안정 비정규직과 청년을 대변하는 세대별 형태의 초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개인적 의식과 태도 및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등 인식과 지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었음. 이에 이 글은 탐색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음. 설문조사는 2014년 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조사기간: 2014년 7월 15일 - 8월 20일) 진행했으며, 총 1,204명 중 463명(청년유니온 363명, 알바노조 100명)의 조합원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음.⁶⁾

6) 설문조사 표본 모집단은 2014년 7월 기준 총 1,204명(청년유니온 892명,알바노조 312명)이었으며, 조사 표본은 463명(청년유니온 363명, 알바노조 100명)으로 수거율은 38.4%였음(* 오차율 95% 신뢰구간 ± 3.57). 조사 방식은 동일한 설문조사 문항을 두 노동조합이 각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을 취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응답 독려 전화를 진행했음.

2. 불안정 청년 노동 조직의 일반적 특징

: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1) 불안정 청년 이해대변 노동조합 출현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공통점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공통점은 조합원 조직 분포가 수도권 중심이며, 서울지역 조합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조합원 가입 경로가 기존 조직과 달리 매우 매스미디어 매체(언론 방송 등 기사 소식 79.4%, 주위 소개 8.3%, 인터넷, sns 등 12.3%) 통한 가입 경로임. 노조 조직 형태 또한 외국 노동조합(청년조직)과 달리 양대노총이라는 상급단체 아닌 독자 노조 형태를 띄고 있음. 이 때문에 노동조합의 ‘물적 인적 자원’과 ‘정책적 자원’은 취약한 상태임.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차이점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차이점은 조직 출범의 역사, 조직 형태, 조직 활동, 기존 단체 교류, 사회적 대화 모델 등에 대한 태도 등에서 다소간 차이점 확인 됨.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표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직 비교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출범	노조 필증 2013.4.30. [2010.3.13. 1기 출범]	노조 필증 2013.8.7. [2013.1.2 알바연대 → 알바노조]
조합원	892명	312명
후원회원	약 350명	약 450명
조합비	5,210원(최저임금) 급여 1% 권고	5,210원(최저임금)
조직형태	지역지부 중심(8개) 서울, 인천, 충북,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경남	대학교 분회 중심(7개) 고대, 성대, 경희, 서강, 가톨릭, 성 공회대, 부산 동아대
소모임	대학생 학습 모임 1개 기타 인문,여행 소모임 7개	여성주의 소모임 1개
기타 조직	청소년유니온 26명	알바연대 유기적 관계
노조 관계	양대노총 다양한 교류	양대노총 다양한 교류
정당 관계	새누리당 제외하고 폭 넓은 기존 정당과 교류	진보정당(노동당)과 교류 상대적 넓음
노사 관계	거버넌스형 사회적 대화 모델 참여 긍정적 인식 경향	거버넌스형 사회적 대화 모델 참여 회의적 인식 경향

① 조직 역사

- 무엇보다 청년유니온 2010년 1기 집행부(위원장: 1기 김영경, 2기 한지혜)가 출범한 이후 2014년 현재 3기 집행부(위원장: 3기 김민수)가 출범했고, 알바노조는 2013년 1기 집행부가 출범(위원장: 구교현)한 상태임. 다만, 두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시기는 2013년(청년유니온 필증 2013.4.30., 알바노조 필증 2013.8.7.)이었음.

② 조직형태

- 현재 청년유니온은 전국적 노동조합 형태를 띄고 있으나 상층 중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한 상태임, 다만 광역 지자체 8개에 지역 지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과 활동 역량 등이 일정하게 있음. 알바노조 또한 전국적 노동조합 형태를 띄고 있고, 상층 중심의 활동이 활발한 것은 청년유니온과 같으나, 청년유니온과 차이점은 대학교라는 캠퍼스(분회)를 조직 거점으로 갖추고 있음.

③ 조직 관계

- 청년유니온은 보수정당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등에 대해 모두 열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물론 이런 이유로 선거 시기에 내부 정치방침을 두고 이해관계 차이가 나타남). 반면 알바노조는 2012년 대선 이후 알바연대를 모태로 출범(당시 진보신당 활동가)했기에 상대적으로 노동당에 대한 친화성이 높은 편임.

- 이런 이유로 청년유니온은 기존 노동조직, 시민사회단체, 노사정 제도화 모델 등의 다양한 노사관계 영역에서 폭 넓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알바노조는 기존 노동조직 및 시민사회단체 협력 관계, 그리고 노사정 제도화 모델 등의 다양한 노사관계 영역에서 그 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음.

2) 청년부문 운동의 다양성 시작

- 먼저,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출현은 세대별 불안정,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문제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건설된 것임.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간 산업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고정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탈피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형태도 최저임금 투쟁, 청년고용할당제 등 준 사회운동적 성격의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

- 물론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출범 및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그 활동 및 방식 등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른 상황임. 다만, 현재 청년유니온의 경우 서울시라는 광역 지자체와의 사회적 교섭(청년유니온: 사회적 교섭 vs. 서울시: 간담회/협약식)을 진행했고, 알바노조의 경우 2개의 사업체(구이가, 레드아이) 사업체와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 등의 사안으로 개별 교섭 및 협약을 진행했음.

-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청년 노동운동 조직의 활동, 사업 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현하고 있는 불안정 청년 노동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의식과 상태, 노조 활동 인식과 경향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기존 노동운동 진영이나 학계에서도 의미가 있음.

3.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의식과 상태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조합원 인구사회학적 기초 실태

- 먼저, 청년 노동조직인 두 노동조합 조합원의 인구학적 속성은 평균 연령 28.5세(청년유니온 29.7세, 알바노조 24세)이며, 남성(61.1%, 청년유니온 61.2%, 알바노조 60.8%)이 여성(38.9%, 청년유니온 38.8%, 알바노조 39.2%)보다 다소 많았음. 혼인상태는 미혼(86.7%, 청년유니온 84%, 알바노조 96.9%)이 기혼(1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조합원 거주 지역은 수도권(75.7%)이 비수도권(24.3%)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2] 노동조합 조합원 인적속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거주 지역	서울	216	46.7	성별	남성	281	61.1
	경기	109	23.5		여성	179	38.9
	인천	23	5	혼인	미혼	399	86.7
	강원	4	0.9		기혼	61	13.3
	충남	5	1.1	교육 학력	중학졸업	1	0.2
	충북	8	1.7		고등재학	6	1.3
	대전	10	2.2		고등중퇴	1	0.2
	전북	3	0.6		고등졸업	14	3.0
	전남	1	0.2		2-3년제 대학 재학	4	0.9
	광주	7	1.5		2-3년제 대학 중퇴	2	0.4
	경북	8	1.7		2-3년제 대학 졸업	17	3.7
	대구	18	3.9		4년제 재학	132	28.7
	경남	19	4.1		4년제 중퇴	26	5.7
	부산	21	4.5		4년제 졸업	181	39.3
	울산	1	0.2		대학원 재학	33	7.2
	제주	7	1.5		대학원 졸업	43	9.3

* 주: 청년 노동단체 조합원 4년제 대학 재학, 졸업 이상 학력 89.7%(대학 73.2%, 대학원 16.5%)

[참조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구성원 분포 - 인구사회학적 속성(단위: %)

	성별		혼인		교육				지역	
	남성	여성	미혼	기혼	고졸 이하	2-3년 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이상	수도권	비수도 권
알바 노조	60.8	39.2	96.9	3.2	9.4	3.1	85.4	2.1	72.2	27.8
청년 유니온	61.2	38.8	84.0	15.9	3.6	5.5	70.8	20.1	76.6	23.4
계	61.1	38.9	86.7	13.2	4.8	5.0	73.9	16.3	75.7	24.3

[참조2]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구성원 분포 - 노동시장 경제활동 속성(단위: %)

		현재 경제활동 하지 않음	졸업 후 취업준비 또는 진학준비	이전 직장 다녔으나 현재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현재 취업 혹은 직장 다니고 있음
알바 노조	남성	62.7	5.1	13.6	18.6
	여성	44.7	5.3	5.3	44.7
	계	55.7	5.2	10.3	28.9
청년 유니온	남성	18.0	5.0	10.8	66.2
	여성	17.0	5.0	9.2	68.8
	계	17.6	5.0	10.2	67.2
전체		25.7	5.0	10.2	59.1

[참조3]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구성원 분포 - 노동시장 규모, 시간 속성(단위: %)

	사업장 고용 규모							근로시간 형태	
	근기법 예외	취업 규칙 미비	노사 협의회 미설치	형식상 이해대변 기구 존재 가능 사업장					
	1 -4인	5 -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전일제 풀타임	시간제 파트타임
알바 노조	34.4	37.5	15.6	1.6	6.3	1.6	3.1	34.3	65.7
청년 유니온	27.5	25.1	14.6	16.1	5.6	2.6	8.5	78.8	21.2
계	28.6	27.1	14.8	13.8	5.7	2.5	7.6	70.1	29.9

[참조4]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구성원 분포 - 노동시장 직업 속성(단위: %)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능직	장기기계 조립직	단순 노무직
알바 노조	2.7	10.8	14.9	28.4	16.2		2.7		24.3
청년 유니온	5.4	44.0	24.9	9.4	2.6	0.6	3.7	1.7	7.7
계	5.0	38.2	23.1	12.7	5.0	0.5	3.5	1.4	10.6

- 둘째, 청년 노동조직인 두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재학, 졸업 이상 학력 수준이 89.7%(대학 73.2%, 대학원 16.5%)였고, 대학원 재학 이상 조합원은 청년유니온(20.1%)이 알바노조(2.1%)에 비해 10배 정도 많았음.

2) 조합원 노동시장 실태

- 첫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이 소속된 직장 종사자 규모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근로자 의사대변 기구 설치 의무가 아닌 30인 이하 사업장이 70.5%(청년유니온 67.2%, 알바노조 87.5%)였고, 취업규칙 의무 비치 적용 예외 사업장인 10인 미만 사업장이 27.1%(청년유니온 25.1%, 알바노조 37.5%),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예외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이 28.6%(청년유니온 27.5%, 알바노조 34.4%)였음.

- 둘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 직장은 교육서비스업 21.1%(청년유니온 22.3%, 알바노조 14.7%), 기타 16.1%(청년유니온 15.3%, 알바노조 20.6%), 음식숙박업 10.2%(청년유니온 7.1%, 알바노조 26.5%) 등의 순임[*알바노조 : 도소매업 16.2%, 청년유니온 5.9%]. 조합원 직업 분포 또한 사무관리 및 전문직이 66.3%(청년유니온 74.3%, 알바노조 28.4%)고, 서비스 판매직 비중은 17.7%(청년유니온 12%, 알바노조 44.6%)였음.

[표3]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시장 속성1 - 직업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산업	농림어업	3	0.7	직업	관리직	21	5.0
	광업제조업	13	3.1		전문직	162	38.2
	건설업	3	0.7		사무직	98	23.1
	도소매업	32	7.6		서비스직	54	12.7
	숙박음식업	43	10.2		판매직	21	5.0
	금융보험업	6	1.4		농림어업직	2	0.5
	교육서비스업	89	21.1		기능직	15	3.5
	전기가스증기수도업	6	1.4		장기기계조립직	6	1.4
	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39	9.2		단순노무직	45	10.6
	전문과학기술업	38	9.0	사업장 규모	1-4인	116	28.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업	35	8.3		5-9인	110	27.1
	보건복지업	35	8.3		10-29인	60	14.8
	사업시설관리지원업	12	2.8		30-99인	56	13.8
	기타	68	16.1		100-299인	23	5.7
노조	알바노조	100	21.6		300-499인	10	2.5
	청년유니온	363	78.4		500인 이상	31	7.6

[표4]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시장 속성2 - 경제활동, 노조 유무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경제활동	임금노동자	324	70	근로시간 고용형태	전일제 풀타임	242	52.3
	비임금노동자	18	3.9		시간제 파트타임	103	22.2
	해당 사항 없음	105	22.7	고용기간 고용형태	정규직	145	42.4
주말 근무 여부	전혀 하지 않음	107	25.4		기간제	161	47.1
	가끔 함	213	50.5		일용직	13	3
	거의 매번 함	102	24.2		간접고용	12	3.6
노조 유무	무노조 사업장	353	84.9		특수고용	11	3.2
	유노조 사업장	63	15.1				

[표5]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시장 속성3 - 노동일, 시간, 소득

		나이	주당 근무 일	주당 근로 시간	월평균 소득 (만원)			나이	주당 근무 일	주당 근로 시간	월평균 소득 (만원)
성별	남성	28.9	4.5	33.9	166.5	거주 지역	서울	28.5	4.5	32.6	156.2
	여성	27.9	4.4	31.6	133.3		경기	28.3	4.3	33.0	161.1
혼인	미혼	27.7	4.4	31.5	141.2		인천	28.2	4.5	33.0	145.8
	기혼	34.4	5.0	41.7	221.0		강원	31	4.3	27	112.7
노조	알바노조	24.0	4.2	30.1	84		충남	30.8	5	32	176.6
	청년유니온	29.7	4.5	33.4	164.3		충북	25.6	3.3	22.6	89.4
직업 지위	임금노동자	29.5	4.8	35.8	157.8		대전	30.1	4.7	33.3	173.1
	비임금노동자	31.7	5	37.5	98.7		전북	29.6	5.5	58.5	165
	해당사항 없음	25.2	2.9	18.2	142.7		전남	35	5	25	10
근로 시간	풀타임	30.8	5.2	40.4	183.8		광주	31.4	5.5	40.2	173.8
	파트타임	25.3	3.7	21.3	76.1		경북	28.1	4.4	26.8	100.8
사 업 장 규모	1-4인	28.3	4.0	28.1	109.5		대구	29.0	4.0	32	107.3
	5-9인	28.2	4.7	33.7	131.3		경남	29.7	5.3	44.2	173.0
	10-29인	29.6	4.7	37.2	157.0		부산	28.1	4	31.6	149.3
	30-99인	31.5	4.7	37.0	161.6		울산	28	5	10	155
	100-299인	29.5	4.7	33.6	219.6		제주	26	4.6	27.2	110.8
	300-499인	29.7	4.5	34.3	157.8		합계	28.5	4.5	33.0	153.1
	500인이상	29.9	4.8	37.5	309.2						

- 셋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 직장과의 속성을 보면 평균 근무일은 4.5일(청년유니온 4.5일, 알바노조 4.2일)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3시간(청년유니온 33.4시간, 알바노조 30.1시간)이었음.[* 주말 근무 수행 비율 74.6% : 청년유니온 76.4%, 알바노조 65.8%] 이를 반영하듯 청년 조합원 근무형태는 전일제 풀타임이 70.1%(청년유니온 78.8%, 알바노조 34.3%)였던 반면에 단시간 파트타임은 29.9%(청년유니온 65.7%, 알바노조 65.7%)였음. 이를 반영하듯 조합원 월 평균 소득은 153만원(청년유니온 164.3만원, 알바노조 84만원) 정도에 그쳤음.

3) 조합원 기본 속성과 활동

- 먼저,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시기는 청년유니온(2010년)에 비해 알바노조 출범(2013년)이 늦기 때문에 2013년(35.7%)과 2014년(19.7%) 조합원 가입 분포로만 보면 알바노조는 2013년(47.6%)과 2014년(48.8%) 조합원 구성이 큰 차이가 없으나, 청년유니온은 2013년(32.9%)에 비해 2014년(13%) 조합원 구성이 절반 이하로 낮았음.

- 둘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경로는 개인적 네트워크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언론매스미디어, SNS)을 통한 조직화였음. 설문조사 응답 조합원 가입 경로는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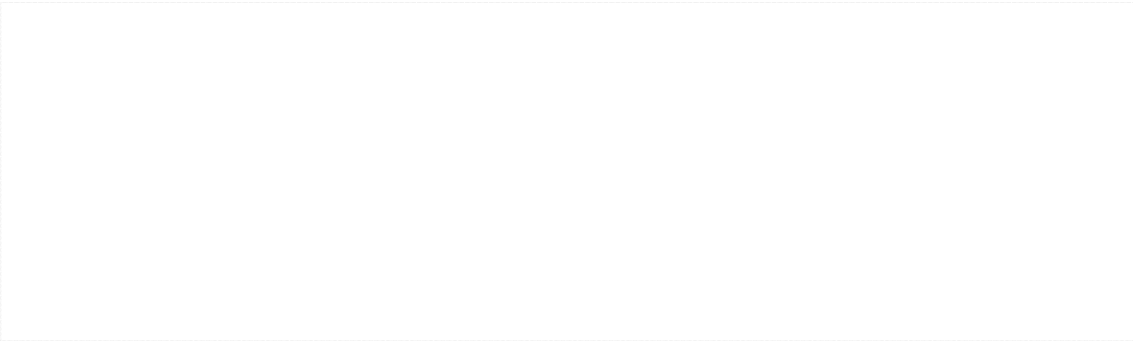
및 매스미디어 등의 소식(79.4%, 청년유니온 80.7%, 알바노조 73.5%), △인터넷, SNS 등(12.3%: 청년유니온 11.8%, 알바노조 14.5%), △주위 사회적 관계망(8.3%, 청년유니온 7.4%, 알바노조 12%) 순이었음.

[표6]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시기 및 지위(단위: %)

	노조 가입 시기				노조 지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원	대의원, 지부지회 집행부 간부
알바노조		3.6	47.6	48.8		
청년유니온	14.1	40.1	32.9	13.0	22.0	78.0
계	11.4	33.2	35.7	19.7		

* 주 : 알바노조는 현재 노조 조직 형태상 대의원 체계가 없음

[그림 1]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경로



[표7]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경로 - 노조 내 성별(단위: %)

	성별	방 송 , 신 문 , 잡 등 에 서 소 식 을 접 하고	인 터 넷 이 나 sns 등 에 서 알 알 게 되어서	친 구 나 선 후 배, 지 인 의 개 는 권 유로		광 우 병 소 고 기 쫓 불 집 회 참 여 경 험	방 송 , 신 문 , 잡 등 에 서 소 식 을 접 하고	인 터 넷 이 나 sns 등 에 서 알 알 게 되어서	친 구 나 선 후 배, 지 인 의 개 는 권 유로
알바 노조	남성	78.4	13.7	7.8	알바 노조	있음	66.7	16.7	16.7
	여성	65.6	15.6	18.8		없음	76.9	13.5	9.6
	계	73.5	14.5	12.0		계	73.2	14.6	12.2
청년 유니온	남성	80.6	11.3	8.1	청년 유니온	있음	78.4	12.8	8.7
	여성	80.9	12.8	6.4		없음	84.1	10.3	5.5
	계	80.7	11.8	7.4		계	80.7	11.8	7.4

[표8]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경로 - 노조 내 대학 활동별(단위: %)

노조	대학 활동 경험 유무		방 송 , 신 문 , 잡 등 에 서 소 식 을 접하고	인 터 넷 이 나 s n s 등 에 서 알 게 되어서	친 구 나 선 후 배, 지 인 의 소 개 또 는 권 유로		대학 활동 경험 유무		방 송 , 신 문 , 잡 등 에 서 소 식 을 접하고	인 터 넷 이 나 s n s 등 에 서 알 게 되어서	친 구 나 선 후 배, 지 인 의 소 개 또 는 권 유로
알바노조	학생 운동	있음	63.0	21.7	15.2	청년 유니온	학생 운동	있음	74.8	10.7	14.6
		없음	91.7	4.2	4.2			없음	83.7	12.0	4.3
	총학 단대	있음	63.6	9.1	27.3		총학 단대	있음	75.2	15.9	8.8
		없음	75.9	17.2	6.9			없음	85.1	8.6	6.3
	학부과 대표	있음	57.1	14.3	28.6		학부 과대표	있음	80.4	10.9	8.7
		없음	78.2	16.4	5.5			없음	81.3	11.6	7.1
	소모임 학회	있음	71.0	17.7	11.3		소 모 임 학회	있음	80.1	11.7	8.2
		없음	100.0					없음	88.6	8.6	2.9
	계		74.6	15.5	9.9		계		81.1	11.3	7.6

[표9] 노동조합 조합원 대학 활동 및 집회 참여 경험(단위: %)

	대학 활동 경험(유경험 응답)					
	학회/소모임/ 동아리 활동	과/학부대표	단대/총학 집행부	학생운동 단체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	집회시위 기타참여
알바노조	88.9	21.5	14.1	60.8	33.7	92.4
청년유니온	88.0	31.7	39.2	35.9	60.1	75.5
계	88.2	29.5	33.9	41.3	54.7	78.9

－ 셋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대학 활동 경험이 노조 조합원 가입 및 활동 경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보면 ‘학회/소모임/동아리 활동’(88.2%)이 가장 많았고, ‘학생회 활동’(총학생회/단과대학생회 33.9%, 과대표 및 학부대표 29.5%)과 ‘학생운동단체’(41.3%) 경험은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간 차이가 확인됨. 한편 조사대상 조합원들은 2008년 광우병소고기 촛불집회 참석자가 절반(54.7%, 청년유니온 60.1%, 알바노조 33.7%) 가량 되었고, 최근 집회 및 시위 참석자는 3분의 2(78.9%, 청년유니온 75.5%, 알바노조 92.4%)가 넘었음.

－ 넷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상태를 보면, 주로 ‘사적 모임’(취미문화모임 2.81점, 인터넷 동호회 모임 2.12점)보다 ‘공적 모임’(시민사회단체 3.09점, 정당정치단체 2.51점) 참여가 많았음. 다만 ‘자선봉사 모임’(1.93점)과 ‘종교단체’(1.74점)과 같은 사적 모임은 가장 낮았음. 한편 정당정치 참여도는 알바노조(2.85점)가 청년유니온(2.43점)에 비해 다소 높았음.([그림 2] 참조)

[그림2] 노동조합 조합원 사회활동 참여도(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주: 1) 사회활동 참여도 점수는 1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는 “회원만 가입했다” 3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4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로 계수 값으로 처리.

2) 사회활동 참여도 점수가 높을 수로 해당 단체/조직 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

[표10] 노동조합 조합원 사회활동 경험 I (단위: %)

	종교활동					정당정치단체 참여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전혀 참여하 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알바노조	73.9	8.7	8.7	4.3	4.3	33.3	8.6	15.1	25.8	17.2
청년유니온	68.0	7.2	9.6	8.8	6.3	40.5	11.6	22.6	15.4	9.9
계	69.2	7.5	9.5	7.9	5.9	39.0	11.0	21.1	17.5	11.4

[표11] 노동조합 조합원 사회활동 경험 II(단위: %)

	취미문화 모임 참여					자선봉사 모임 참여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알바노조	27.2	10.9	25.0	28.3	8.7	58.7	15.2	12.0	10.9	3.3
청년유니온	28.9	9.6	25.9	22.3	13.2	54.3	14.6	16.0	11.8	3.3
계	28.6	9.9	25.7	23.5	12.3	55.2	14.7	15.2	11.6	3.3

[표12] 노동조합 조합원 사회활동 경험Ⅲ(단위: %)

	시민사회단체 참여					인터넷 동호회 참여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했 다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전혀 참여 하지 않았다	회원 가입만 되어 있다	소극적 으로 참여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	매우 적극적 으로 참여
알바노조	16.1	11.8	21.5	26.9	23.7	47.3	15.4	22.0	9.9	5.5
청년유니온	20.1	17.1	19.8	25.6	17.4	40.8	25.6	18.2	11.3	4.1
계	19.3	16.0	20.2	25.9	18.6	42.1	23.6	18.9	11.0	4.4

4) 조합원 노조 활동과 과제

(1) 노조 참여도

－ 먼저,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현재 노조활동 참여도는 의무적 성향의 ‘선거 참여’(3.28점)나 ‘간담회, 지역모임’을 제외하고, 직접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노조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교육/강연 프로그램 사업(2.63점), △캠페인/집회/서명운동(2.64점), △기획사업/팀 활동 사업(2.75점) 순이었음.

[표13] 노동조합 참여도 의견(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캠페인/집회 서명운동	교육/강연 프로그램	임원/대의원 선거	기획사업 팀 활동	간담회 지역모임	온라인 활동 [유니온 별도]
알바노조	3.44	3.18	3.35	3.21	3.67	
청년유니온	2.45	2.50	3.27	2.64	3.01	2.29
계	2.64	2.63	3.28	2.75	3.13	2.29

* 주 : 계수 값은 5점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노동조합 사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 다음으로,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은 간부 의향은 낮으나, 간접적 활동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먼저 현재 조합원들은 대의원/지회/분회 등의 중간 간부 권유 시 출마 의향이 있다는 직접적인 활동의견(2.76점)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반면에 노조 활동이나 일을 주위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달(3.56점)하거나, 노조 가입을 권유(3.53점)하는 등의 간접적 활동 의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4] 노동조합 노조 간부 의향 및 활동(단위: %)

	지회/분회/ 대의원 등 출마 의사 있음				노조 활동/일을 주위 친구/지인 전달 노력				주위 친구/지인들에게 노조 가입 권유 노력			
	점수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점수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점수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알바 노조	3.08점	21.2	22.4	18.8	3.96	20.0	36.5	35.3	3.89	11.8	31.8	38.8
청년 유니온	2.68점	23.1	16.5	10.7	3.46	27.0	40.8	14.0	3.44	21.8	36.4	19.0
계	2.76점	22.8	17.6	12.3	3.56	25.7	40.0	18.1	3.53	19.9	35.5	22.8

(2) 노조 내부 운영 평가

－ 노동조합 내부운영 평가는 노조 민주주의 척도인 “의사결정”(6개)과 “의사소통”(9개)지표를 주로 설문조사 문항에 넣어 살펴보았음. 이 문항은 주로 노조 내부 관료적 태도나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내용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들임.

－ 첫째,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대체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청년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조합원 의견제안 청취 노력(3.61점), △의사결정 안건 사전홍보(3.45점), △의사결정 과정 조합원 참여 기회(3.44점), △의사결정 과정 소수의견 존중/반영(3.40점), △의사결정 과정 조합원 의사 반영(3.30점) 순이었음.

－ 둘째,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합원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청년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 내부 의사소통 과정은 △노조 전달 소식 신뢰(3.96점), △노조 활동 정보 공개(3.55점), △노조 결정, 활동 의견 전달 통로 존재(3.34점), △회의 결정 내용 충실히 전달(3.28점), △노조 간부들과 노조 의견 나눌 기회 존재(3.24점) 등의 순이었음. 다만, 타 조합원과 노조 의견 교환(3.12점) 및 노조 간부 활동 내용 인지도(3.17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표15]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의견(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임원/집행부 조합원 의견 제안 청취 노력	노조 각종 의 사결정 안전 홍보	노조 의사결 정 조합원 의 사 반영	노조 의사결 정 참여 기회 주어 짐	의사 결정과 정 소수 의견 존중 반영 분 위기	대의원 조합 원 의견 반영 [유니온 별도]
알바노조	3.48	3.20	3.17	3.37	3.51	
청년유니온	3.64	3.51	3.33	3.46	3.38	3.19
계	3.61	3.45	3.30	3.44	3.40	3.19

[표16] 노동조합과 조합원간 의사소통 구조 의견(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임원/집 행 부 와 노조 의 견 나눌 기회 충 분	타 조합 원과의 견 나눌 기회 충 분	노조 전 달 소식 정보 신 뢰	임원/집 행부 활 동 내용 인지	각종 회 의 결정 내용 충 실히 달 달	조 합 원 고 충 의 견이 노 조에 전 달	노조 활 동 정보 가 조합 원 에 게 공개	노조 결 정, 활동 의견 전 달 통로 존재	대 의 원 과 노조 의견 나 눌 기회 충분 [유니온 별도]
알바노조	3.26	3.26	4.15	3.39	3.21	3.25	3.63	3.39	
청년유니온	3.23	3.08	3.93	3.12	3.29	3.25	3.53	3.33	2.96
계	3.24	3.12	3.98	3.17	3.28	3.25	3.55	3.34	2.96

(3) 노조 내부 사업 평가

가. 알바노조

- 지난 1년 동안의 알바노조 내부 사업에 대한 조합원 평가와 의견을 보면, △최저임금 1만원/전체 알바노동자 보호사업(4.14점), △체불임금/노동상담 등 개별권익보호사업(4.10점), △밀양송전탑, 세월호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활동(3.98점), △야간모니터링 등 알바노동자 직접 캠페인 사업(3.71점), △반성폭력, 대들보, 노동법 등 교육사업(3.58점)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표17] 알바노조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알바노조		체 불 임 금 노 동 상 담, 개 별 권 익 보 호	최저임금 1 만, 전체 알 바 노동자 권익보호	밀양송전탑, 세월호 문 제, 사회 적 이슈 활동	반성폭력 , 대들보, 노 동법 등 교 육사업	뜨개질, 독 서회 등 조 합원 소모 임	야간모니 터링 등 알 바 노동자 직접 캠페 인 사업
성별	남성	3.98	4.02	3.98	3.57	3.30	3.70
	여성	4.32	4.32	4.00	3.65	3.44	3.76
촛불집회	있음	4.13	4.17	4.13	3.57	3.30	3.77
	없음	4.11	4.13	3.91	3.61	3.38	3.70
집회시위	있음	4.13	4.16	3.99	3.58	3.33	3.71
	없음	3.33	3.67	3.67	3.67	3.67	3.67
계		4.10	4.14	3.98	3.58	3.34	3.71

[표18] 알바노조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

알바노조		제불임금 노동상담, 개별권익보호			최저임금 1만, 전체 알바 노동자 권익보호			밀양송전탑, 세월호 문제, 사회적 이슈 활동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촛불 집회	있음	20.0	46.7	33.3	13.3	56.7	30.0	23.3	40.0	36.7
	없음	23.2	42.9	33.9	23.2	41.1	35.7	32.7	43.6	23.6
집회 시위	있음	20.5	45.8	33.7	19.3	45.8	34.9	29.3	42.7	28.0
	없음	66.7	33.3		33.3	66.7		33.3	66.7	
성별	남성	28.3	45.3	26.4	24.5	49.1	26.4	28.8	44.2	26.9
	여성	11.8	44.1	44.1	11.8	44.1	44.1	29.4	41.2	29.4
계		21.8	44.8	33.3	19.5	47.1	33.3	29.1	43.0	27.9

[표19] 알바노조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

		반성폭력, 대들보, 노동법 등 교육사업				뜨개질, 독서회 등 조합원 소모임				야간모니터링 등 알바 노동자 직접 캠페인 사업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촛불 집회	있음	6.7	43.3	36.7	13.3	10.0	60.0	20.0	10.0	3.3	3.3	26.7	46.7	20.0
	없음	8.9	37.5	37.5	16.1	17.9	33.9	41.1	7.1		7.1	33.9	41.1	17.9
집회 시위	있음	8.4	39.8	37.3	14.5	15.7	43.4	33.7	7.2	1.2	6.0	31.3	43.4	18.1
	없음		33.3	66.7			33.3	66.7				33.3	66.7	
성별	남성	9.4	39.6	35.8	15.1	15.1	47.2	30.2	7.5		5.7	35.8	41.5	17.0
	여성	5.9	38.2	41.2	14.7	14.7	35.3	41.2	8.8	2.9	5.9	23.5	47.1	20.6
계		8.0	39.1	37.9	14.9	14.9	42.5	34.5	8.0	1.1	5.7	31.0	43.7	18.4

나. 청년유니온

- 지난 몇년 동안 청년유니온 내부 사업에 대한 조합원 평가와 의견을 보면, △노동상담 등 권리구제 사업(3.99점), △불합리한 청년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3.97점), △정책요구, 투표독려 등 정치참여 활동(3.78점), △청년 일자리 및 실업문제 등 정책제시(3.59점),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사업(3.25점), △청년 주거, 안정, 결혼 등 생활안정 활동(3.11점) 순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표20] 청년유니온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청년 유니온		청년 불합리한 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	청년 주거, 안정, 결혼 등 생활안정 활동	노동상담 등 권리구제 사업	정책 요구, 투표 독려 등 정치 참여 활동	청년 대상 노동인권, 강연 교육사업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사업
성별	남성	3.91	3.55	3.13	3.94	3.78	3.84	3.25
	여성	4.07	3.66	3.08	4.09	3.79	3.99	3.25
촛불 집회	있음	3.97	3.53	3.12	3.99	3.81	3.90	3.23
	없음	3.97	3.68	3.09	4.01	3.74	3.89	3.28
집회 시위	있음	4.04	3.64	3.09	4.09	3.83	3.97	3.26
	없음	3.75	3.44	3.17	3.71	3.64	3.66	3.22
가입 시기	2008년-2010년	3.94	3.55	3.06	4.04	3.82	3.96	3.18
	2011년-2012년	3.99	3.58	3.05	4.04	3.88	3.95	3.22
	2013년	3.97	3.52	3.12	3.97	3.74	3.80	3.26
	2014년	3.91	3.83	3.32	3.85	3.55	3.91	3.40
계		3.97	3.59	3.11	3.99	3.78	3.90	3.25

[표21] 청년유니온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

청년 유니온		청년 불합리한 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촛불 집회	있음	1.8	2.3	17.0	55.0	23.9	2.3	7.8	36.2	42.2	11.5
	없음		2.1	19.3	57.9	20.7	0.7	4.1	35.2	46.2	13.8
집회 시위	있음	1.1	1.5	15.3	56.6	25.5	1.5	6.6	33.2	44.2	14.6
	없음	1.1	4.5	25.8	55.1	13.5	2.2	5.6	43.8	42.7	5.6
성별	남성	1.4	2.7	22.1	51.8	22.1	2.3	7.2	36.9	41.0	12.6
	여성	0.7	1.4	11.3	63.1	23.4	0.7	5.0	34.0	48.2	12.1
계		1.1	2.2	17.9	56.2	22.6	1.7	6.3	35.8	43.8	12.4

[표22] 청년유니온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

청년 유니온		청년 주거, 안정, 결혼 등 생활안정 활동					노동상담 등 권리구제 사업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촛불 집회	있음	4.1	17.9	45.4	26.6	6.0	1.4	0.9	23.4	45.9	28.4
	없음	1.4	20.7	51.0	21.4	5.5	0.7	1.4	22.8	46.9	28.3
집회 시위	있음	3.6	20.1	45.6	24.8	5.8	1.1	0.7	19.0	46.4	32.8
	없음	1.1	15.7	53.9	23.6	5.6	1.1	2.2	36.0	46.1	14.6
성별	남성	2.7	20.7	45.5	23.0	8.1	1.4	0.5	28.4	42.8	27.0
	여성	3.5	16.3	51.1	27.0	2.1	0.7	2.1	14.9	51.8	30.5
계		3.0	19.0	47.7	24.5	5.8	1.1	1.1	23.1	46.3	28.4

[표23] 청년유니온 사업활동 평가 의견(단위: %)

청년 유니온		정책 요구, 투표 독려 등 정치참여 활동					청년 대상 노동인권, 강연 교육사업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사업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매우 못함	못하 는편	보통 이다	잘하 는편	매우 잘함
촛불 집회	있음	0.9	4.6	26.1	49.5	18.8	0.9	3.2	22.9	50.5	22.5	4.6	10.1	48.6	31.2	5.5
	없음	0.7	4.1	29.7	51.0	14.5		1.4	29.0	49.0	20.7	2.1	11.0	50.3	29.7	6.9
집회 시위	있음	0.7	4.0	26.3	49.6	19.3	0.4	2.2	21.9	50.7	24.8	4.0	10.9	46.4	32.5	6.2
	없음	1.1	5.6	31.5	51.7	10.1	1.1	3.4	36.0	47.2	12.4	2.2	9.0	58.4	24.7	5.6
성별	남성	1.4	4.1	30.2	44.1	20.3	0.9	2.7	30.2	43.7	22.5	4.5	10.4	48.6	28.4	8.1
	여성		5.0	23.4	59.6	12.1		2.1	17.7	59.6	20.6	2.1	10.6	50.4	34.0	2.8
계		0.8	4.4	27.5	50.1	17.1	0.6	2.5	25.3	49.9	21.8	3.6	10.5	49.3	30.6	6.1

[표24] 청년유니온 향후 노조 사업 핵심 과제 의견(중복응답: 1,2,3순위)

	향후 주요 노조 과제	1,2,3순위 합계		1순위	
✓	청년 불합리한 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	30.6%	(331)	62.5%	(227)
✓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	21.9%	(237)	14.6%	(53)
	청년 주거, 안정, 결혼 등 생활안정 활동	9.8%	(106)	3.9%	(14)
✓	노동상담 등 권리구제 사업	13.1%	(142)	4.7%	(17)
	정책 요구, 투표 독려 등 정치참여 활동	5.6%	(61)	2.5%	(9)
	청년 대상 노동인권, 강연 교육사업	10.2%	(110)	4.7%	(17)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 사업	8.6%	(93)	7.2%	(26)

－ 한편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은 향후 노동조합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핵심사업(1,2,3순위 의견 합계)으로 △불합리한 청년노동환경 문제제기와 개선(30.6%, 1순위 의견 62.5%),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21.9%, 1순위 의견 14.6%), △노동상담 등 권리구제 사업(13.1%, 1순위 의견 4.7%) 등을 꼽았음.⁷⁾

7) 알바노조도 청년유니온과 동일하게 사업평가 이후 해당 문항 중 향후 핵심사업으로 응답하게 했으나, 노조 설문조사 과정에서 오류로 해당 문항은 통계처리하지 않았음.

[표25] 청년유니온 향후 노조 사업 핵심 과제 의견(1순위 의견)

		청년 불합리한 노동환경 문제제기 개선활동	청년 일자리, 실업문제 정책 제시	청년 주거, 결혼, 양육 등 생활안정 활동	노동상담 권리구제 활동	정책요구, 투표독려 정치참여 활동	청년 대상 노동인권 강연 등 교육사업	조합원 및 후원회원 확대사업
촛불 집회	경험 있음	64.2	13.3	4.1	4.6	1.8	6.0	6.0
	경험 없음	60.0	16.6	3.4	4.8	3.4	2.8	9.0
집회 시위	경험 있음	61.7	13.1	4.0	4.4	2.9	5.8	8.0
	경험 없음	65.2	19.1	3.4	5.6	1.1	1.1	4.5
가입 시기	2008년~2010년	66.7	19.6	2.0	2.0		2.0	7.8
	2011년~2012년	66.9	13.1	2.1	6.2	1.4	3.4	6.9
	2013년	57.1	15.1	6.7	5.0	3.4	6.7	5.9
	2014년	57.4	12.8	4.3	2.1	6.4	6.4	10.6
간부 경험	있음	71.4	12.9	4.3	2.9	4.3	1.4	2.9
	없음	65.4	11.5	1.9	9.6	1.9	5.8	3.8
노조 지위	조합원	63.8	16.3	1.3	6.3	2.5	5.0	5.0
	대의원, 집행부	62.2	14.1	4.6	4.2	2.5	4.6	7.8
성별	남성	60.4	12.6	4.1	5.0	3.6	5.0	9.5
	여성	66.0	17.7	3.5	4.3	0.7	4.3	3.5
계		62.5	14.6	3.9	4.7	2.5	4.7	7.2

4) 조합원 노조 지향과 인식

－ 무엇보다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노동조합 가치, 지향, 활동 등에 대한 문제가 관심사임. 과연 “청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음.

[그림3]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지향도(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주: 1) 노조 가치 지향 점수는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계수 값으로 처리.

2) 노조 가치 지향 점수가 높을 수록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진보적/긍정적/적극적으로 해석.

－ 첫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조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동일시’(4.22점)하는 의식이 강했음. 또한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효과성의 믿음’(3.79점)도 갖고 있었음. 한편 청년 조합원은 ‘노조의 대정부, 대사용자의 상대적 교섭력 우위’(3.30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듯 ‘노조 활동에 대한 개인 헌신’(3.48점) 의향도 높았음([그림 3] 참조).

－ 둘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조합 지향과 관련하여 ‘경제주의적 경향’(근로조건 개선)이 ‘정치사회주의적 경향’(정치사회문제 개선)보다 더 높게(3.35점: 청년유니온 3.19점, 알바노조 4.05점) 나타났음. 또한 노동조합의 사업과 활동 우선 목표는 ‘내부 조합원 중심적 활동’보다는 ‘전체 불안정 청년 비정규 중심적 활동’의 필요성((4.61점: 청년유니온 4.63점, 알바노조 4.49점)을 갖고 있었음.

[표26]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지향 의견 I (단위: %)

	노조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은 내 가치와 비슷하다					노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알바 노조			7.1	40.4	52.3		9.5	36.9	34.5	19.0
청년 유니온	0.2	0.8	13.7	52.6	32.5	1.9	9.0	41.0	38.5	9.3
계	0.2	0.6	12.5	50.3	36.2	1.5	9.1	40.2	37.8	11.1

[표27]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지향 의견 II (단위: %)

	노조는 나의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조합원의 요구를 관철시킬만한 힘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알바 노조		3.5	13.1	35.7	47.6	2.3	20.2	39.2	27.3	10.7
청년 유니온	2.7	11.5	24.7	37.4	23.4	3.5	18.7	31.6	35.2	10.7
계	2.2	10.0	22.6	37.1	27.9	3.3	19.0	33.1	33.7	10.7

[표28]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지향 태도(단위: %)

	점수	노조 경제적 삶과 문제 개선 우선			노조 정치 사회적 문제 개선 우선			점수	조합원 이익 우선			전체 청년, 불안정 비정규 이익 우선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 →→→→ ⑥			① ←←←← →→→→ ⑥									
알바 노조	4.05점	8.1	14.0	8.1	23.3	27.9	18.6	4.49점	3.5	9.4	8.2	17.6	35.3	25.9
청년 유니온	3.19점	15.2	28.1	16.3	15.7	12.9	11.8	4.63점	2.8	6.3	9.4	18.5	32.5	30.6
계	3.35점	13.8	25.4	14.7	17.1	15.8	13.1	4.61점	2.9	6.9	9.2	18.3	33.0	29.7

[그림4]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 계급의식(단위: 1점~5점, 중간 값 3점)



주: 1) 계급의식 변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문제’, ‘재벌 자본의 노사관계 우월적 지위 문제’, ‘자본의 이윤추구 의식 문제’3가지로 한정하여 살펴봄.

2) 계급의식 변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계급의식이 진보적/긍정적/적극적(대자적)으로 해석.

－ 셋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의 계급의식(3가지 지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⁸⁾ 설문조사 항목별 의견을 보면 ‘재벌 자본의 우월적 지위 문제’(4.87점), ‘파업시

8) 사회학에서 계급의식은 ‘즉자적’ 계급의식(class-in-itself)과 ‘대자적’ 계급의식(class-for-itself)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경우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조합원(임노동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 수준의 계급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사용함. 다만 현 수준에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계급의식은 내적 이질성이 높은 집단(노동당지지 성향)을 통제하면 청년 노동조직 내에서 좀 더 계급적인 계급(more class)이거나 혹은 좀 덜 계급적인 계급(less class)’으로 판단 됨.

대체 근로 투입 문제’(4.73점), ‘지분의 이윤추구 문제’(4.41점) 모든 항목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다만 노조 조직별 차이가 다소 확인되고 있는데, 청년유니온은 ‘노사 관계 문제’(대체 근로)에 다소 높은 의식을 보였고, 알바노조는 ‘자본주의 문제’(자본의 이윤 추구)에 다소 높은 의식을 보였음([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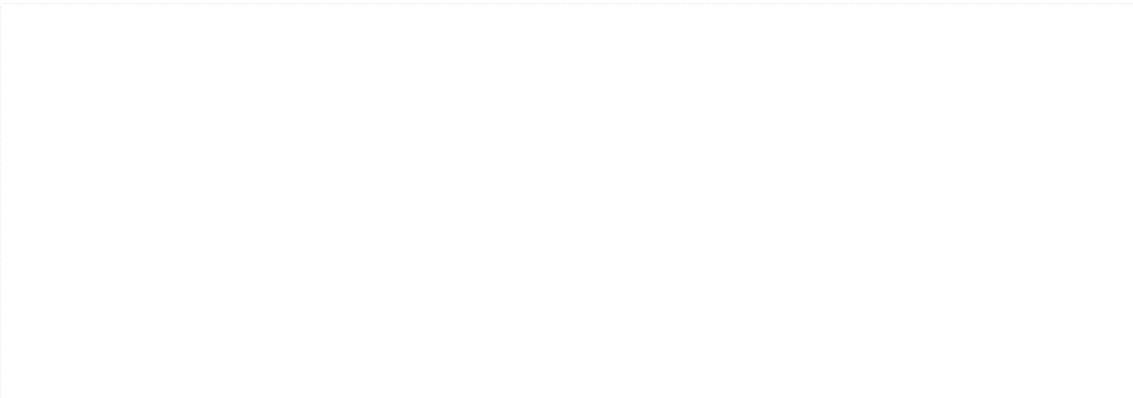
[표29]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 계급의식(단위: %)

	파업 중 기업이 다른 노동자 고용 법 금지 필요[대체근로]					기업체는 노동자와 소비자 희생 시켜 이윤 추구[이윤 착취]					오늘날 한국 재벌은 지나치게 힘이 큼[자본 우월]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매우 찬성	찬성	보통	매우 반대
알바노조	71.0	20.4	3.2	3.2	2.2	64.5	23.7	8.6	3.2		89.2	8.6	2.2	
청년유니온	91.3		6.9		1.8	74.6		19.6		5.8	96.9		1.2	1.8
계	86.2	5.1	5.9	0.8	1.9	71.6	6.9	16.4	0.9	4.1	95.2	1.9	1.4	1.4

[표30] 노동조합 조합원 양대노총 평가 인식(단위: %)

	민주노총 평가						한국노총 평가					
	매우 잘 못	잘못하는 편	그저 그렇다	잘하는 편	매우 잘함	잘 모름	매우 잘 못	잘못하는 편	그저 그렇다	잘하는 편	매우 잘함	잘 모름
알바노조	7.4	38.3	26.6	17.0		10.6	35.1	23.4	25.5			16.0
청년유니온	2.5	21.8	36.9	26.2	1.4	11.3	15.7	28.7	32.8	7.7		15.2
계	3.5	25.2	34.8	24.3	1.1	11.2	19.7	27.6	31.3	6.1		15.3

[그림5] 노동조합 조합원 지지정당(단위: %)



－ 넷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직(민주노총, 한국노총)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 결과 민주노총의 부정적 평가(28.7%)가 긍정적 평가(25.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부정적 평가

(47.3%)가 긍정적 평가(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⁹⁾

- 다섯째, 청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재 기존 정당 중 “지지정당 없음”(2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밖에 지지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조합원의 지지정당 분포는 노동당(23.2%), 정의당(20.6%), 녹색당(12.9%), 통합진보당(9.2%), 새정치민주연합(8.3%), 새누리당(1.5%) 순이었음. ‘노동당’지지 정당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알바노조(72.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노동당 활동이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청년유니온의 지지정당 분포는 ‘정의당’(25.6%)과 ‘녹색당’(14.9%) 비중이 높았음.

4. 맺음말: 과제와 단상

1)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은 누구인가?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확인됨. 무엇보다 노조 조직 건설과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개별 구성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일정하게 확인되고 있음. 첫째, 조합원 구성 분포 상 수도권(75.5%), 20대 중후반(평균 연령 28.5세), 미혼(86.7%), 남성(61%), 4년제 대학 재학 이상(89.7%), 30인 이하 사업장(70.5%), 사무관리 및 전문직(66.3%)이 다수라는 점임. 노동시장에서 조합원들의 지위와 상태는 1주일 평균 4.5일(주말 포함 근무 74.6%) 정도 일하며, 주당 평균 3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음.[* 차이: 현재 취업자 청년유니온 67.2%, 알바노조 28.9%]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가입 경로는 ‘개인적 네트워크’(8.3%)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언론매스미디어 79.4% SNS 12.3%)을 통한 조직화였음. 조합원 교육수준의 80% 이상이 4년제 대학 이상이다 보니, 대학 시절 활동 경험 중 ‘학회/소모임/동아리 활동’(88.2%)을 가장 많이 했고, 연령 특성상 2008년 광우병소고기 촛불집회 참석자가 절반(54.7%, 청년유니온 60.1%, 알바노조 33.7%) 가량 되었고, 최근 집회 및 시위 참석자는 2/3(78.9%, 청년유니온 75.5%, 알바노조 92.4%)가 넘었음.

9) 반면 양대노총에 대한 평가 인식에서 ‘중립적 평가’(민주노총 34.8%, 한국노총 31.3%), ‘모름’(민주노총 11.2%, 한국노총 15.3%)의 견이 전체의 절반 가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기존 조직 노동을 대표하는 양대노총의 젊은 층(청소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이를 반영하듯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상태를 보면, 주로 ‘사적 모임’(취미문화모임 2.81점, 인터넷 동호회 모임 2.12점)보다 ‘공적 모임’(시민사회단체 3.09점, 정당정치단체 2.51점) 참여가 많았음. 다만 ‘자선봉사 모임’(1.93점)과 ‘종교단체’(1.74점)과 같은 사적 모임은 가장 낮았음. 한편 정당정치 참여도는 알바노조(2.85점)보다 청년유니온(2.43점)이 다소 높았음.[* 차이: 지지정당 청년유니온 정의당 20.6% & 녹색당 23.2%, 알바노조 노동당 72.3%]

2) 청년 노동운동 조직의 과제와 딜레마,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 모색

- 향후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두 청년 노동조직은 기존 노동조직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역할과 기능 정립’(경제적 지위향상, 비인간적 작업조건 개선, 기업과 정부 견제, 사회공동체 및 연대성 회복)의 측면에서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음.

- 첫째, 불안정 청년 조직의 요구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력(규모, 교섭)과 정치적 힘(정당 연계 혹은 관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재의 수도권 중심 노조 조직을 어떻게 ‘전국적 조직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는 조직화 과정의 경로에 일정한 차이(대학 캠퍼스 조직화의 알바노조, 광역 지역 중심의 조직화 청년유니온)가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봐야할 문제임.

- 둘째, 만약 청년 노동조합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전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노조 조직 규모 확대 속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규모의 문제’가 발생함. 실제로 현재 두 노동조합의 2014년 실태조사 설문조사 수거율은 노조 건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수준에 불과 했음. 이것은 노동조합 초기 조합원 관리(after management)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조합원 서비스 기능(소모임) 차원의 느슨한 조직이 있으나 이것은 제한적임.

- 셋째, 그러나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듯 조합원 요구사항 중 하나는 보편적 청년 노동문제(체불, 최저임금, 일자리 등) 평가나 지향은 높았음.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 법제도 준수 및 강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요구 성격들이 많음. 그렇다면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 된 대정부(중앙/지방) 교섭과 협약 문제(할당제

벗어난 의제) 차원에서 보면, 노동조합으로서 ‘구조적 힘’이나 ‘단결적 힘’을 발현 할 준비가 일정 필요한 시점임.¹⁰⁾ 하지만 현재적 수준에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정치적 조직력(조직 규모, 중심성, 집중성, 노조 대변 진보정당) 수준은 미약한 상황임.¹¹⁾

－ 넷째,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재는 노조 내부 의사결정과 소통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조합원의 교육수준(대학, 대학원)과 직업(사무관리, 전문직) 분포도를 보면 계급구조상 뿌띠브루주아 성향의 노조 활동과 의식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처럼 임노동관계를 형성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 청년 노동, 비정규직, 서비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등 초기업적이고 보편적 노동 문제에 착목하는 준/유사 사회운동적 성격의 노동운동과 비슷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업장 내 문제와 작업장 밖의 문제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관심과 문제의식이 필요한데, 자칫 노동조합 조합원이 정치사회적 관점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면 과거 프랑스 노동조합에서 나타난 ‘적대적 비참여’(hostile non-participation) 현상이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내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음.¹²⁾

－ 다섯째, 물론 현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가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때론 일정한 시점에서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탈집중화 문제’로 조직 통제 어려움 봉착 가능성(딜레마)도 있음. 이것은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도 내부 구성원의 요구(voice)를 수렴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실험의 한계 봉착 가능성 존재한 다는 것임. 예를 들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나 최저임금위원회기구와 같은 국가 정부 기구에 초대받을 경우 해당 노동조합 내 참여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 시기에 정치세력화나 정치적 연합(혹은 선거전술) 문제에 다양한 이견과 충돌이 나타날 수 있음.

10)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E.O. Wright, 2000)의 노동조합의 힘은 ‘구조적 힘’(structure power)과 ‘단결적 힘’(associational power)으로 구분됨. 단결적 힘(단결력)이란 노동자들이 집합적 조직을 형성하면서 확보되는 다양한 형태의 힘을 의미 함. 반면에 ‘구조적 힘’이란 경제체제 내에서 노동자 위치로부터 파생되는 힘을 의미함. 따라서 구조적 힘은 노동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따른 노동의 힘을 의미하는 ‘시장 교섭력’과 특정 노동자 집단이 핵심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생기는 힘을 뜻하는 ‘작업장 교섭력’이라는 하위 유형임.

11)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1991)는 노동계급 정치력을 위한 4가지 전제 조건으로 △노조 조직률, △노조 집중성(concentration), △노조 대변 정당 통합, △노조와 정당간 연계 형성을 꼽고 있음.

12) 프랑스의 경우 노사교섭보다 총파업이나 노동계급 정당의 정치력을 통한 해결의 방법을 선호(?)했기에, 노동자들이 작업장 밖의 권력투쟁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노동조합에는 일반 노동자들의 참여가 적었음.

- 여섯째,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일정한 내부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진보정당(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이나 노동조직(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임. 더불어 ‘알바노조-청년유니온’ 조합원 거의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라는 조직 대상 중복(경쟁구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적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도 노동운동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고민의 지점임. 예를 들면 현재 전 세계적인 산업/고용 정책 흐름을 볼 때 노동시장 불안정 청년고용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주요 의제(최저임금, 초단시간근로, 청년인턴)를 중심으로 두 청년노조가 협력적 관계 속에서 대정부/지자체/사용자 요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임.

토론1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1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2

하윤정 알바노조 조직팀

토론3

<청년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3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